

종합·해설

민주 경선 막바지... 후보별 최종전략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 진영에서는 최종 승부처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전'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을 전개하고 있다.

경선 10연승을 엮으며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는 여세를 몰아 과반 득표율을 확보,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에 선출된다는 입장인 반면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통해 결선투표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3개 지역 순회경선 방식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앞으로 남은 지역은 대구·경북(12일), 경기(15일), 서울(16일) 등 3개 지역.

특히 주말 2연전으로 진행되는 경기와 서울 경선에는 전체 선거인단(약 108만명)의 49%에 달하는 53만명의 선거인단이 분포하고 있어 어느 후보도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10개 지역 경선에서 한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경기지역 경선에서도 '표 율립

文 “쇄신·비전 제시...본선 직행”

孫·金 “수도권 선전...결선 승부”

丁 “반목은 안돼...중심추 역할”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수도권 표심 공략 이외에도 대선 후보로서 당의 쇄신과 새로운 비전 마련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 진영에서는 마지막까지 각기 최선을 다한 이후,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합종연횡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합종 연횡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최종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대를 내거는 것은 오히려 표의 결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위인 정세균 후보는 결선투표 진출 전망이 사실상 어두워진 만큼 경선

자금이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이진투구식 경선에서 드러난 친노와 반노의 갈등, 지도부와 후보 간의 반목 양상에 일침을 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심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각 후보간의 막판 경쟁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결선투표 여부는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변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안 양자대결 점전 보수층 역선택 영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의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3자구도에서 안 원장이 28.6%로 문 후보(14.6%)를 배 가량 앞섰지만 양자대결에서는 안 원장 43.0%, 문 후보 40.4%로 점전을 벌였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유권자 7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7%포인트)에선 다자구도에서도 점전 양상이 나타났다. 3자대결에서 안 원장(27.7%)이 문 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사제관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했다. /연합뉴스

朴 “침소봉대 구태” 安측 “불출마 협박이 구태”

박근혜-안철수 거듭 충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대선 D-100일인 10일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발언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박 후보는 친구 사이의 대화를 침소봉대하는 것을 구태정치라고 비판했고, 안 원장 측은 협박이아말로 구태정치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정준길 전 공보위

원)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친구 사이의 전화통화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사람이 협박이니 공방을 벌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의 구태 발언이 1차적으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안 원장 측 금대십 변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대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구태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불출마 협박을 한 게 구태지,

문제 제기를 어떻게 구태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이 불출마 종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을 말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가 “(선거가) 네거티브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것을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 원장 자신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안철수, 박근혜에 ‘판정승’

불출마 협박 의혹 공감 여론조사 앞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새누리당의 불출마 협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앙일보가 지난 8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원장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40.2%이고,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26.9%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8일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안 원장 측 주장에 신뢰가 간다는 응답이 49.1%인 반면,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매일경제와 MBN이 한걸리서치에 의뢰해 7~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이 57.0%, 안 원장 측의 과잉반응이라는 의견이 22.7%였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 논란으로 박 후보가 더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51.4%로 안 원장이 더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28.5%)보다 앞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서 안 원장도 부정적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의 효과도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안 양자대결 점전

보수층 역선택 영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의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3자구도에서 안 원장이 28.6%로 문 후보(14.6%)를 배 가량 앞섰지만 양자대결에서는 안 원장 43.0%, 문 후보 40.4%로 점전을 벌였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유권자 7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7%포인트)에선 다자구도에서도 점전 양상이 나타났다. 3자대결에서 안 원장(27.7%)이 문 후

보(23.3%)를 오차범위에서 앞서는데서 나아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안 원장(40.9%)이 민주당 후보(42.6%)에게 오차범위에서 뒤지는 결과까지 나왔다.

안 원장과 문 후보가 양자 및 다자구도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보수층의 역선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누리당 지지자나 보수층이 양자대결 응답시 경쟁력이 약해보이는 문 후보에게 표를 더 던졌다는 것이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안 원장이 박 후보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보수층의 호감도를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라며 “역선택 영향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5·16-유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0일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평가논란과 관련,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친박계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옹호 발언에 대해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라고 답한 데, 이어 “몇십 년 전 역사라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나가지 않았는가.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신에 대해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했다”면서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 당시에 피해 입은 분들, 또 고초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말로서 제가 사과드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위 구성

국회는 10일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부 제출된 특위 구성안을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9일까지 3개월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거래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건당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

NPL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줬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무수익인 또는 부실채권이라 불린다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1순위 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이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NPL투자의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무자금이 적고 (높은 대출금),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①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①

♣ 개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간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천투자 교수진

이현준 교수

- * 한국NPL경제연구소소장* 법무법인'바른길'자산관리팀장
- * 다와옥션NPL실천투자교수
- * PMG(박문규)부동산스쿨강남,종로NPL전담교수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경매매이커"저자, PMG(박문규)부동산스쿨NPL전담교수)

◆**무료 공개특강**◆

내용	"NPL의진단과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9월8일(토) : 오전10시
혜택	* 사전예약및당일접수시 * 수강료10%할인/교재20%할인

Dawa (주)다와옥션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걸림이! www.dawauction.co.kr

남구 월산동 통교거리 1번 출구 / 신안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금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충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 ▶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m)시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높음, 매가121억
- ▶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 0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1,412평) 매가평당100만
- ▶ 나주시 문평면 집총지 6차선도로450m 집합 15,638㎡(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 ▶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원참고주택공장전합
- ▶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평차량 진입가능, 참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 ▶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정청고 전원주택 등적합
- ▶ 나주군 봉안면 덕곡리 2차선 도로 접, 전,임야6,100평 매가1억45천만 원참고 주택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원참고주택 위치적합
-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5~6백만, 주말농장 전용주택 가족유치등 매가 3,400만
- ▶ 장성읍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참고, 전원주택,공정청고,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상가주택등

- ▶ 장성 북하면 악수리 백암사입구 모델 및 식당 4800평 현성업종 매가17억
- ▶ 서구화정동 영주사거리부근 상가 주택 중주거지역 대지900㎡(270평)보7천원 월540만 매7억
- ▶ 서구 용암동 상암리역 최고상권 대지121평 건524평,보1억48천만,월수1150만,매18억45천만 지하1 지55층
- ▶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 ▶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교너상가 매가12억2천5천원,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수익성 최 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m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2.특수불건만 전문 취급
- 3.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 4.단독/공동투자 가능
- 5.교육/인장비등 회비 550만원

* 투자자모집/5억월이상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